

2021년 내집 마련의 꿈

대한경제

오진주 기자

2021
기자의 세상보기



경기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-D노선이 지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아파트값이 폭등했다. 사진은 김포시 일대에 변경된 GTX-D노선 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./ 사진=안윤수 기자

“진주야! 아무것도 없어!”

늘어지게 늦잠을 자던 어느 날 주말
오후,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.

대학교 친구인 그녀는 내가 부동산 기
자가 된 이후 종종 내 기사에 취재원으로
등장하고 있다.

4년 전 결혼한 그녀는 모텔하우스를

보지도 않고 털썩 경기 김포시에 지을 예
정인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가 당첨됐다.
그날은 그녀가 처음으로 ‘내 아파트’ 가
들어설 땅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.

휴대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어이없
는 웃음소리였다. 말이 좋아 ‘신도시’ 일
뿐 결국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땅일 거란
걸 예상은 했지만, 도심에서 자란 그녀가
보기에 그곳은 그저 논밭이 가득한 시골



서울 강서구 지하철 2·5호선 까치산역 인근에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으로 주로 찾는 빌라들이 밀집해 있다.
/ 사진=오진주 기자



이었다. 그녀는 달리는 자동차의 창문을
여니 구수한 냄새도 난다고 했다.

직장 동료들은 그녀에게 “지금 서울
밖으로 나가면 평생 들어올 수 없다”며
부동산 시장에서 진리로 통하는 잔소리를
계속했다. 옆자리 팀장님은 “죽어도 서울
에 붙어있어야 한다”며 본인은 광진구를
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.

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. 언
제까지 빌라로 가득한 까치산에 살 순 없
다고 생각했다. 전세계약은 계속 갱신해야
하며, 아이도 가져야 했다.

4년 전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시골 길
을 달렸던 그녀는 요즘 집에 가만히 앉아
있기만 해도 행복하다. 아파트값이 두 배

로 올랐기 때문이다.

그녀의 행복이 최고치를 찍은 건 지
난해 김포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‘금(金)
포’라고 불리던 때였다. 그녀는 하루에
수십 번씩 맘(Mom)카페를 들락날락하며
나에게 ‘김포맘’들의 기대감을 전했다.
“우리가 서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”,
“워낙 저평가됐던 곳이다. 이제야 제값
받는 것 뿐이다”, “이제 오를 일만 남았
다” 등등.

얼마 전 아이를 낳은 그녀에게 나는
부동산 기자로서 “집은 엉덩이 밑에 깔고
있으면 의미가 없다. 환금(換金)이 돼야
의미가 있다. 어차피 거기에서 아이를 고
등학교까지 보낼 것 아니냐”라며 지나친
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지만, 행복한 그

녀의 귀엔 들어가지 않았다.

대신 지금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그녀
의 남편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
타 본 지옥철 중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
1년째 몸을 맡기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.

매일 우리 집이 얼마가 됐는지 검색해
보는 그녀를 보면서 30년 전 아파트를 샀
던 나의 부모님이 떠올랐다.

1992년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 이사
를 하던 날, 어머니는 5살이었던 나를 이
렇게 표현했다. 거실에 달린 샹들리에를
보는 눈이 반짝반짝했다고.

지금은 재건축을 앞둔 그 ‘형석아파
트’는 부모님 이름으로 된 첫 집이자, 나
에겐 첫 아파트였다. 아파트를 처음 본 나
는 거실 인터폰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신
기해 하루 종일 초인종을 누르고 구경하
길 반복했다. 비록 맨 꼭대기, 맨 가장자
리에 위치한 집이라 여름만 되면 방구석
에 푸르른 곰팡이꽃이 폈지만 우리 가족
은 그저 행복했다.

30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다주택자
가 됐지만 아직도 그때 그 형석아파트를
이야기한다. 그때 그 형석아파트 살 때 진
주가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았고, 그때 그
형석아파트 살 때 진주가 연예인 보려고

학교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시내에 나갔
다는 것까지.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는 모
든 에피소드 앞에 형석아파트가 수식으로
붙는다. 10년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
하고 말이다.

지금은 김포가 아닌 금포에 살게 된
그녀도, 30년 전 나의 부모님도 처음 내
이름으로 된 집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.
30년 뒤 그녀도 형석아파트 추억을 이야
기하는 부모님처럼 아이에게 허허벌판을
달리던 추억을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.

반대로 아직 추억을 이야기할 집을 마
련하지 못한 또 다른 그녀도 있다.

3년 전 결혼한 그녀는 앞서 말한 신혼
부부 빌라로 가득한 까치산에 살고 있다.
창문을 열면 설거지를 하는 옆 빌라 아주
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그 집은 전셋집이
다. 집주인은 이 근방에 수십 채의 집을
갖고 있다고 했다.

그녀의 신혼집에 놀러 간 그날이었다.
새택이 된 친구가 해준 밥을 먹고 8시 뉴
스를 보는데 전셋집 사기 보도가 나왔
다. 친구와 함께 “안 됐네”를 연신 반복
했다. 다음 날 그녀에게 급한 연락이 왔
다. 어제 본 그 뉴스에 나온 집이 바로 그
녀의 집이었다.

뉴스를 같이 볼 때까지만 해도 그녀도



나도 몰랐다. 방승이 나간 뒤 피해자들이 하나둘 단독방을 만들었고, 그녀도 어느 순간 그 단독방에 초대됐다. 그때야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란 사실을 알았다.

연락이 닿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신혼부부들이 모여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꼬박 반년을 보냈다. 결국 그녀에겐 그 집을 새로 가져갈 집주인이 나타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. 하지만 그렇게 허둥대는 동안 그녀는 ‘영끌(영혼까지 끌어모을)’ 할 기회를 놓쳤다.

작년에는 유독 누군가의 첫 ‘내 집’에 대해 기사를 많이 썼다.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조차 안 되는 집값을 바라보며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.

불과 3년 전만 해도 술자리에서 회사



e대한경제 신문 지면(2021년 3월2일자)

욕이나 하던 친구들은 30대 중반이 된 지금, 부동산 기자인 나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한다. “여기 분양받았는데 앞으로 아파트값 좀 오를까?”, “그 동네 집 알아보는데 아파트값 떨어지진 않겠지?” 등등.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요구뿐이다.

그러면 나는 온갖 지식과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상담을 해주지만 마지막 질문은 항상 똑같다. “그래서 오른다고? 안 오른다고?”.

내 집에 대한 기대는 30년 전 형석아 파트에 입주했던 나의 부모님도, 지난해 금포에 입성한 그녀도 똑같다.

다른 점이라면 지금은 일상으로서의



집보단 자산가치로서 집이 더 중요해졌다. 당장 주변에 아이와 손잡고 갈 도서관이 없더라도 서울지하철 연장선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면 버틸 수 있다.

이런 게 대수일까. 아파트 때문에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한다. 혼인신고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.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면 결혼식을 했더라도 최대한 버텨보야 한다.

그럴 수밖에 없을 만도 하다. 지금 내 집값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. 인터넷으로 쉽게 내가 사는 아파트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. 휴대전화 속 애플리케이션은 알람을 울리며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알려준다.

언론은 그걸 퍼 나른다. 중개업자는 얼마에 팔렸다고 소문을 내고, 유튜버는 원색적인 단어로 시장을 자극한다.

그렇다면 누굴 탓해야 할까. 맘카페에 모인 맘들을 탓할 수 있을까? 실시간으로 가격을 중계하는 언론이나 중개업자를 탓할 수 있을까? 아니면 부동산 정책을 수십 번 발표한 정부를 탓해야 할까? 결국 세계 경제 상황을 탓해야 하는 것일까.

최근 2~3년 동안 내가 쓴 부동산 기사의 모든 방향은 한군데로 모인다. 바로 ‘부동산 시장 안정화’.

하지만 아직도 나는 ‘안정화’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.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으면 그게 안정화일까?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안정화일까?

오늘도 어쭙잖은 지식으로 신혼부부 부동산 상담을 해주는 나에게 ‘안정화’는 30년 전 촌스러운 상들리에가 빛나던 첫 내 집인 형석아파트일지도 모르겠다.

30년 전 우리 부모님도, 금포에 입성한 그녀도, 아직 까치산에 있는 또 다른 그녀도,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모두의 형석아파트에 ‘값’이 남기보단 추억이 깃들길 바란다. 🍷